

# 어버이날 최고 선물은 '건강'

## 홍삼 등 건강식품 30% 이상 매출 급신장

올해 어버이날에는 건강 관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려, 자녀들이 부모님의 '건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 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 인기가 많았던 품목은 전복세트와 미역·김 선물세트였다. 전년 대비 각각 33%, 40% 이상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미역과 김 등 해초류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팔린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관련,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식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 고가의류인 모피류도 지난해 동기 대비 48%나 많이 팔렸다. 평균가격 500만원대의 모피 제품은 어버이날을 맞아 최대 30% 할인가격에 판매한 덕분에 연휴기간 10착 이상이 팔려나갔다. 또 한우 소갈비세트의 매출은 32%가 늘었으며 화장품은 20%, 의류와 잡화류는 10%대 신장세를 보였다.

롯데백화점 역시 홍삼관련 제품 등 건강식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 정관장 홍삼제품은 22% 이상 매출

이 증가했다. 기능성 화장품도 인기가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이상 높은 매출을 올렸으며 어버이날 '스테디셀러' 상품인 안마기는 7% 늘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올해 어버이날은 건강식품이 대세였다"며 "건강식품 외에도 주름개선과 미백기능이 강화된 10만원대의 기능성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한편, 육선과 G마켓 등은 라인업에서는 부분 가발, 보정속옷 등으로 부모님께 '젊음'을 선사하려는 신세대 자녀의 센스 있는 선물이 잘 팔렸다.

G마켓에서 지난해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정수리의 부피감을 높일 수 있는 '볼륨탑 피스' 등의 가발 판매량은 지난해 보다 15%, 지난해 동기 대비 91% 늘었다.

여성 시니어 의류 카테고리 판매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2.5배, 지난해 대비 3배 급증했다. 특히 거들이나 울인원과 같은 몸매 보정 속옷이 잘 팔렸다. 또 홍삼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5%,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보해가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효사랑 실천행사를 펼치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8일 가수 백지영씨가 광주 남구 사직동 사랑의 쉼터에서 열리는 '효사랑 잔치'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갖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nas@kwangju.co.kr

## 광주은행, 투병 직원가족 격려

광주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대 질병으로 치료중이거나 투병중인 직원 및 직원가족을 위로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최근 동구 계림동 금수장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질병치료중인 지원과 직원가족 11명을 초청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광주은행은 JOY & FUN 경영의 일환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직원과 가족들을 위해 매년 이같은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과세불복 진행상황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국세청은 8일 과세 불복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를 위해 이달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불복청구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았으나 앞으로 납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조회를 원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계산' 코너에 들어가 '불복청구 진행상황'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는 '심리상담 배정안내', '사건심리 중', '사전열람 중', '위원회 상정 중', '결정서 발송 중' 등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의 단계별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에 의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고지서를 받은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캐리비안 베이 새 모델

## 닉쿤·빅토리아 발탁

캐리비안 베이는 8일 새 광고 모델로 아이돌 그룹 2PM과 에프엑스에서 활동중인 가수 닉쿤과 빅토리아를 발탁했

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가상결혼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부로 출연중인 이들 커플을 발탁, 고품격 프리미어 워터파크의 이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새로 도입한 '아쿠아루프' 등을 직접 탑승하는 것을 비롯해 아기자기한 모습을 공개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 음식·운송·유통 단기투자 유망

1/4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KOSPI는 2%가 넘는 하락세로 그동안 이어졌던 상승탄력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적시즌이 정점을 지난과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명목지수에 대한 부담감, 실적 모멘텀 공백 상태에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주식시장 이상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구가해 왔던 상품가격 급락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지난해 주가하락의 주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국내증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첫째,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세는 은 선물에 대한 연이은 증거금 인상 등 투기수요 억제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의 단기 투기세력 이탈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둘째, 일본 주요기업들이 보유 재고 소진과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 차질에 직면함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반사이익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4월 복미 자동차시장 내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9.4%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달성했다.

셋째, 3월 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을 하향 돌파한 이후 원화는 달러화 약세와 맞물려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원화 절상의 배경으로는 한국은행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행보,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수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꼽을 수 있다. 즉 펀더멘탈 요인을 반영한 절상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향후 원화강세 추이가 지속된다 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자동차·IT업종 내 대표주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원화 강세에 따른 음식료·운송·유통업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하다. 또한 글로벌경기 및 상품가격에 크게 연동되지 않는 은행주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 전략을 권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